검찰, 尹 전 대통령 사저 전격 압수수색

통일교 인사, 건진법사 통해 김 여사에 물품 전달 의혹
1월 관저 압수수색 실패… 사저는 수색 불승인 사유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달 4일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내란 혐의와 관련해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도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가능해졌다. 남부지검 압수수색 과정은 신응석 검사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으면서 이끌고 있다. 신 검사장은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불리며 과거 검찰에 재직할 당시의 윤 전 대통령과도 근무 인연이 있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 역시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3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13일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증액했으며, 윤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의 현금다발을 보낸 문자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통일교 계열 선문대를 압수수색하고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돈을 건넨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검찰에 항의 중이다. 연합뉴스

이준석 "묻지마 단일화 생각 없다"

"특정인 반대 연대는 실패"
"안·홍 탈락에 가능성 차단"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조기대선 국면의 이른바 '빅텐트' 구성 논의와 관련해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사진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싫다"며 "서슬 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인을 반대하는 목표만이 유일한 연대가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며 "지금의 빅텐트는 또 다른 '진영팔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최종적으로는 한 총리가 정치에 진입해서 이번 대선에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빅텐트가 있다면 과학기술의 빅텐트"라며 "원칙과 상식의 빅텐트다. 좌도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빅텐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의견을 나눠볼 수 있다고 판단한 분들이 적어도 과학기술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 젊은 세대의 아젠다를 논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홍준표 시장"이라며 "국민의힘 경선에서 딱 그 두 분이 최종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기회와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탈이념' 행보에 대해선 "철학적,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뜬금없이 던져놓는 상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한미 동맹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갖고 있고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두렵다"며 "지금도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있으면서 왼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법, '이재명 사건' 선고 TV 생중계

오늘 오후 3시 상고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를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지켜볼 수 있다.

다만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으며, 민주당 측도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까지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

李 사건 관련해 "대선 개입"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그날과 24일까지 두 차례 대법관 합의기일을 열었다.

촛불행동은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늘로 정한 대법원을 향해 '대선 개입'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을 절차도 무시한 채 '재판 지연 해소'라는 말로 포장해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금 시기에 이 후보를 딱 찍어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취 축 CONGRATULATIONS 임
(사)한국키위연합회 회장
한국키위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고 혁 수
(제주시농협 이사)
(사)한국키위연합회 회장과
한국키위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농협 임원 일동

합 축 CONGRATULATIONS 격
제14회 변호사시험

고 광 민
(대기고 25회 · 고려대 사회학과 졸업 · 경희대 로스쿨 졸업)
부 : 고석우(前 제주은행 지점장) · 모 : 조경순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외숙부·외숙모·이모부·이모 일동

합 축 CONGRATULATIONS 격
제14회 변호사시험

김 예 지
부 : 김윤진(前 공무원) · 모 : 차선명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형제 일동

합 축 CONGRATULATIONS 격
2025년 재판연구원 시험
제14회 변호사 시험

홍 예 솔
(부 : 홍은표 · 모 : 오미경)
(외조부 : 오태선 · 외조모 : 고숙자)
2025년 재판연구원 최종 합격 및 제14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외삼촌 일동
(오승철 김경옥 오병철 김은경)